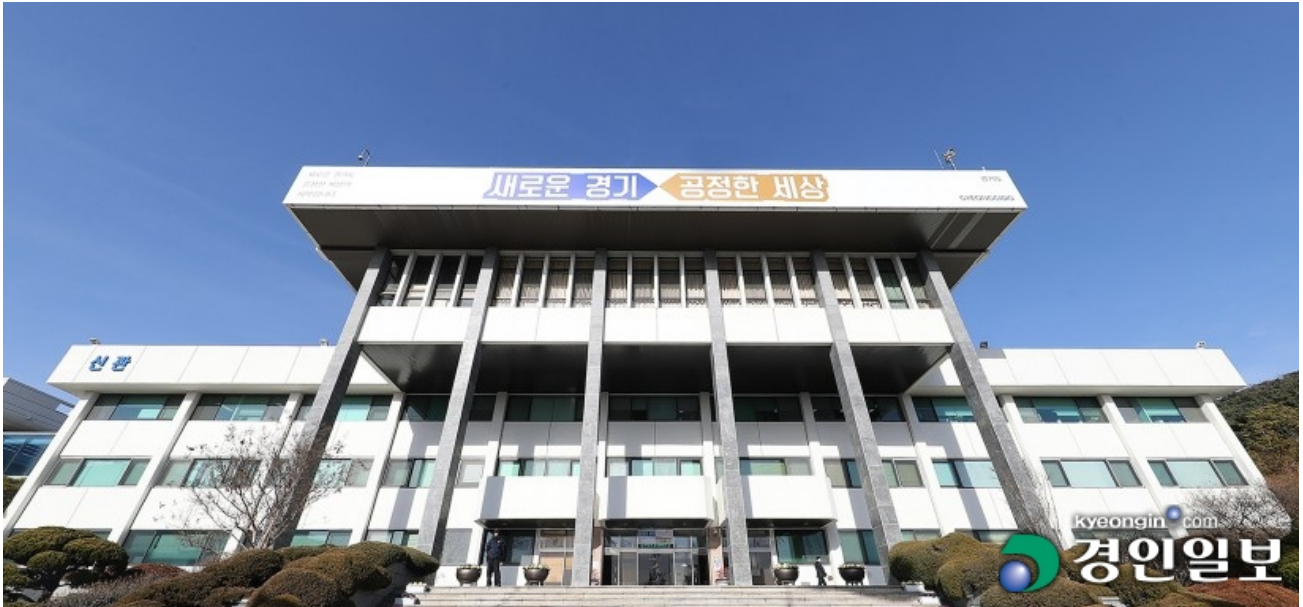


경기도, 게임전시회 北 초청 이어 연천에 '평화경작지' 추진

남국성 기자 발행일 2021-06-03 제2면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경인일보DB

수도권 최대 게임산업전시회에 북한 참여를 모색하는 경기도(4월15일자 2면 보도=**막혔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비대면으로 물고 들지' 관심 집중**)가 이번에는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평화경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남북교류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하 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 평화경작지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데 손을 맞잡았다.

평화경작지 조성은 접경지역인 연천군에 벼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북한에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연천군 군남댐 홍수조절지 내 9만2천561.98㎡(2만8천평) 부지를 최종 확보했는데 이후 농사 대상자를 선정해 본격 농사를 짓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다음 달 개최하는 '2021년 플레이엑스포'에 북한 게임을 소개하는 부스 마련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참여가 어려울 경우 내년 플레이엑스포에 참여하는 방안은 물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농업과 게임 협력과 같은 경기도만의 시도들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도 끊어졌지만 그해 6월 경기도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개최해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